

프로는 내부갈등도 승리로 치유한다

김종건 전문기자의
아날로그스포츠

두경민 끌어안은 'DB의 팀 케미'

프로의 세계에서 경쟁·투쟁심은 제2의 천성
그래서 승리·보상으로 다져진 내부질서 중요

말도 안했던 전설의 키스톤 콤비 킥커-에반스
역살잡던 본즈-켄트도 경기땀 먼저 하이파이브

얼마 전 프로농구 원주 DB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선두를 달리던 팀의 에이스 두경민과 관련된 얘기였다. 각자의 입장과 얘기가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을 종합하면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인 내부갈등이 두경민에 의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DB는 한동안 심한 내홍을 겪었지만 다행히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이상범 감독은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구단도 선수들끼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다행히 DB 선수들도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잘 봉합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감정의 양극은 남았겠지만 밖으로 문제를 확대재생산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DB의 정신적 지주 김주성은 우여곡절 끝에 두경민이 동료들과 화해하고 팀에 복귀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우리 팀의 MVP는 두경민”이라고 했다. 이 말이 립서비스일지 진심일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두경민과 선수들은 동료로서 서로를 다독이면서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기자는 해석한다.

●아마추어는 우승을 위해 뭉치고 프로는 우승으로 뭉쳐진다

팀케미스트리, 스포츠헤들의 자주 듣는 단어다. 보통의 팬들은 팀 동료들끼리의 관계가 생사를 함께 겪은 전우들처럼 끈끈하고 이타적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결합 같은 낱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아마추어는 우승을 위해 뭉치고 프로는 우승으로 뭉쳐진다”는 말이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포츠 격언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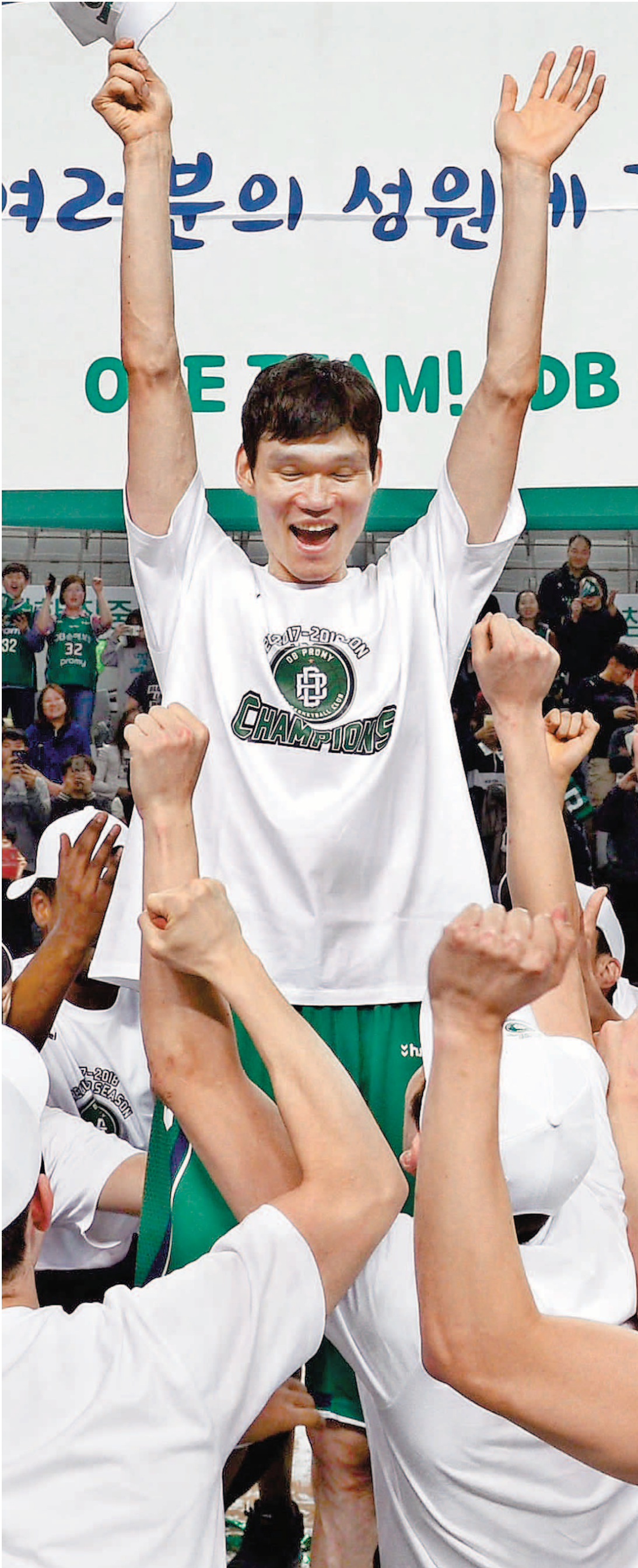
여자하기 단일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팀 구성원이 바뀌는 큰 변화를 겪었다. 정치논리에 따라 남과 북의 선수들은 역지로 한 팀이 됐다. 그동안 살아온 문화와 체제가 다른 선수들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다. 조직력을 다지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발현하는 갈등의 요소를 줄여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큰 문제였다. 세라 머리 감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제시했다. “라커룸에서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링크에 나가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면서 사명감을 내세웠다. 비록 실력차를 극복하지 못해 예선탈락 했지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싸움이 되고 잘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선수들을 자각시키고 원팀이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남북의 선수들이 작별할 때 흘린 눈물을 보면 팀 케미스트리를 만들어가는 치열했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한 열정으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은 다르다. 함께 우승에 도전하지만 성적에 따라 각자의 몸값이 정해지는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철저한 개인중심의 사회다. 9회말 무사만루의 역전 기회에서 대가타석의 타자는 타석의 동료를 응원하면서도 자신이 그 상황을 끝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더 원한다. 그래서 팀 내부의 결속력,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더욱 필요하다.

●경기장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그들이지만

팀 스포츠는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상대를 이기는 것이지만 선수들은 그에 앞서 팀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겨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 경쟁과 투쟁심은 선수들에게 제2의 천성이다. 이런 선수들이 모인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계질서다.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뿐이듯 팀은 구성원들의 위계질서가 명확해야 좋다. 이 교통정리의 원칙이 명확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합리적이려면 그 팀은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

많은 훈련과 실전의 승리, 풍족한 보상을 통해 다져지던 내부질서는 팀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다. 전통의 명문 팀일수록 이런 문화가 잘 남아 있다. 간혹 개성 강한 선수가 기존의 질서를 깨려고 하지만 전통의 힘은 무시하지 못한다. 경쟁으로 다져진 프로페셔널 선수들 모두가 잘났기에 간혹 의견충돌도 생기겠지만 이들은 합리적인 행동과 내부규율을 통해 팀 케미스트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팀 케미스트리가 나쁜 팀



동료끼리 불화가 있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우승을 위해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프로농구 남자부 DB는 두경민 때문에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정신적인 지주인 김주성의 다독이림과 교청스태프의 현명한 선택으로 올 시즌 6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우승 확정 후 환호하는 김주성. 원주 | 김민지 기자 marineboy@donga.com

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는 없다. 잘 나가던 팀이 갑자기 곤두박질친다면 먼저 팀케미스트리를 살펴봐야 한다.

●신화와 실상은 달랐던 대표적인 그들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시(詩)로 남은 선수들이 있다. 최초의 10만 달러 키스톤 컴비였던 킥커~에반스~켄트다. 선수들의 이름이 라임으로 등장하는 이들은 사카고 커브스의 전설이다. 3명 모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킥커와 에반스는 메이저리그 초창기 가장 아름다운 병살플레이를 했던 키스톤 컴비로 유명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팀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그라운드 밖에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만드는 병살플레이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뉴욕 양키스의 MM컴비로 전설이 된 로저 매리

스~미키 맨틀도 팬들의 상상만큼이나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다. 동료지만 서로를 향한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 사례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배리 본즈와 2루수 제프 켄트였다. 2006년 10월 두 사람은 더 그아웃에서 서로를 욕하면서 먹살까지 잡았다. 더 웃기는 것은 두 사람이 치고받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본즈가 3점 홈런을 치고 들어오자 켄트도 앞으로 나가서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향한 불만을 경솔하게 드러냈지만 팀 동료로서 해야 할 역할은 프로페셔널답게 잊지 않았다. 경기 뒤 그 해프닝을 놓고 취재진들이 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덕분에 사건은 해프닝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이번에 우여곡절을 겪은 원주 DB도 비가 온 뒤의 평처럼 더욱 단단한 팀이 되기를 기대한다.

marco@donga.com

원주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스포츠와 함께하는 일자리 탐구

문제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 정책이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서 성과가 금방 나오는 건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체육계도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가 2015년 은퇴한 국가대표선수들의 직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자신이 활동했던 관련 분야로 취업한 경우는 10명 중 겨우 3명이었다. 이들 뿐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관련 직업을 구하는 건 쉽지 않다. 스포츠동아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스포츠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 스포츠 기자의 세계

열정·친화력·체력 가장 중요 스포츠를 즐길 줄 알아야 발전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자(취재, 편집, 사진)가 크게 증가한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다.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었다. 아울러 스포츠전문매체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채용도 증가했다.

한국체육기자연맹에 따르면, 등록기자수는 1993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1990년 147명이던 기자수는 1993년 234명으로 경증 뛰었다. 스포츠 전문지를 비롯해 종합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등의 매체별 기자수를 비교해 봐도 1990년대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대 후반 IMF를 거치면서 주춤하긴 했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또 한번 성장했다. 당시 체육기자연맹의 등록기자수는 300명대로 올라섰다.

이후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부침을 거듭했다. 특히 무가지와 인터넷 언론의 탄생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크게 흔들렸다. 무가지가 가판시장을 장악하면서 문을 닫는 언론사가 생겨났다. 통신사가 추가됐고, 종합편성 채널도 전파를 뒀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취재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출입 매체수(전문지 6개, 종합지 10개, 방송 11개, 통신 3개, 인터넷 및 잡지 20개)는 50여개에 달한다. 이들 중 인터넷 언론이 가장 많다. 기자수도 200여명의 출입기자 중 인터넷 소속은 80여명이다. 다른 프로 단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채용 방식도 변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공채였다.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최근 공채는 거의 사라졌다. 대신 경력기자를 뽑는다. 경력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쌓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다. 또 인터넷 매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는 유능한 기자들도 많다. 물론 방송사나 종합지에 입사해 스포츠 부서를 지원할 수도 있다.

밖으로 보여 지는 모습이 어떨지 몰라도 스포츠 기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다. 기자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뉴스를 쫓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선수의 해외 진출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유럽축구, PGA 및 LPGA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해외진출이 이뤄졌고, 특히 박찬호, 박지성, 박세리 등 국민적인 스타플레이어가 탄생하면서 팬들의 관심과 뉴스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관심은 곧 콘텐츠의 수요를 의미한다. 기자들이 바빠진 이유다.

매일 오전 정해진 시간에 어떤 기사를 쓸지를 보고하고, 그 발제가 부서 책임자인 데스크에서 채택되면 원고 작성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치열해지는 속도 경쟁이다. 미디어 환경의 주류가 스마트 폰으로 옮겨간 요즘엔 걸어 다니면서도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미디어 접근성 때문에 기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스포츠 기자는 꽤나 매력적인 직업이다. 경제력이 상승하고, 레저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스포츠 관련 분야의 확장성도 커진다. 그래서 전망도 밝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자로서의 적성이다. 직업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의 자질을 평가한 다음에 첫발을 내디뎌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일단 스포츠를 좋아해야 한다. 아니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식지 않는 열정이 생긴다. 학창시절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자들의 전공은 다양하다. 대신 글을 조리 있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기자는 기사로 승부하는 직업이기에 자신의 글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사람 관계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친화력도 중요하다. 취재원은 다다익선이다. 지방 및 해외 출장이 잦고 경기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하다.

2016년 4월 스포츠동아에 입사한 고봉준 기자는 “일반 직종과의 가장 큰 차이는 많은 지방출장과 휴일근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경기 취재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 여기에 주말경기의 현장도 커버해야 한다. 남들이 쉬는 때 일해야 하는 게 스포츠 기자다”면서 “뜻이 있다면 부지런히 취입 정보를 찾고, 스포츠 기사를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하다. 내 경우 취입 준비기간에 다양한 기사를 정독한 게 기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92@donga.com

※자신이 몸담고 있는 스포츠 직종(직업)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알고 싶은 스포츠 직종(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스포츠 기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지만 콘텐츠 수요가 많아 전망은 밝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성이다. 열정, 글 솜씨, 친화력 등을 갖췄다면 도전해볼만하다. 스포츠동아 DB

축구협회 경우 출입기자만 200여명 출장 많고 24시간 뉴스 쫓겨야하지만 관련 분야의 확장성도 커 전망은 밝아 전공 무관...조리있게 글 쓸 줄 알아야